

직업훈련생의 직업적 욕구와 훈련만족도에 관한 연구

박 석 돈*

대구대학교 교수

조 주 현

우석대학교 교수

한 상 희

기장장애인복지관

《요 약》

본 연구는 공공 장애인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 훈련생들의 직업적 욕구와 훈련만족도에 관한 연구로, 연구목적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직업획득 즉 고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기관에서 훈련 중인 훈련생들의 훈련만족도를 알아보고 장애인 직업훈련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5개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훈련 중인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 및 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고, 장애인훈련생들의 훈련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직업적 욕구, 훈련과정 및 시설에 대한 훈련만족도조사를 분석하였다.

주제어 : 직업훈련생, 훈련만족도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직업을 통하여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는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고 사회 속에서의 위치를 결정하면서 많은 사회관계를 갖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자신을 표현하고 존재가치를 나타내며, 인생의 보람을 찾고 즐거움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훈련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장애인의 고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에 “장애

* 교신저자(sdpark@daegu.ac.kr)

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해당 법을 개정하면서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대한 사항이 한층 강화되었다.

ILO 직업재활의 기본원칙에서는 직업훈련에 대해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일정기간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산업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므로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직업훈련은 일의 세계를 탐색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하여 그 일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태도, 습관, 이해 등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개인의 직업을 통해서 자기개발은 물론 만족을 얻기 위하여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은 지식전달과 인격형성에 중점을 두는 학교교육과 달리 노동시장의 흐름과 고용주의 요구에 맞는 특정 직무능력에 대해 훈련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습득하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산업사회의 발달은 생산설비의 자동화·전자화를 가져오고 직무기술의 첨단·고급화로 변화시키고 있다. 기업의 형태도 정형화된 대량생산체제에서 소규모 고부가가치 의 존형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유지를 위해서는 개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고, 수요자 중심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최근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의 직업재활 욕구의 다양화 및 전문화, 장애범주의 확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따라 지금까지의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훈련서비스로는 장애인의 훈련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장애인 전문훈련기관의 훈련생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장애인 직업훈련의 개선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직업획득 즉 고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기관에서 훈련 중인 훈련생들의 훈련만족도를 알아보고 장애인 직업훈련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직업훈련기관의 훈련생들의 성별, 연령, 학력, 공과 장애에 따른 훈련생들의 직업적 욕구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직업훈련만족도 요인에 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본다.

셋째, 장애인 직업훈련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훈련만족도 차이를 알아본다.

2.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설문응답시 직업훈련 시작을 수시로 하여, 훈련기간에

대한 통제에 어려움으로 전체 직업훈련자에 대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지체장애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있어, 전체 장애유형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직업훈련

직업재활 과정에서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은 장애인 고용계획에서 내담자의 직업능력 발달을 위한 폭넓은 학습기회와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직업기술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LO는 1939년에 ‘직업훈련에 관한 권고’에서 “기술적 혹은 직업적 지식을 습득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훈련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훈련이 학교에서 행하던 작업장에서 행하던 상관없다”라고 직업훈련에 관해 정의하였고, 또한 1955년과 1983년에는 직업훈련을 장애인의 고용전망에 비추어 그들의 직업적 자질이나 적성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Hamilton과 Roessner(1989)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McGowan과 Porter(1967)는 장애인이 만족스러운 직업적인 역할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회복하도록 도움으로써 강한 동기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서상선(2002)은 “기술적 육체적인 직업의 일정한 목표와 기준에 도달되는 능력습득을 위한 반복적인 행위”라고 정의하였으며, 나영주·박정주(1992)는 직업훈련을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직업훈련은 직업과 관련된 지식과 기능, 기술, 태도 등을 교육함으로써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수준까지 근로자의 행동변화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직장에서 과업(task)을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직업적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조직적인 훈련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직업훈련의 원칙과 유형

1) 직업훈련의 원칙

우리나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는 다음과 같이

직업훈련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직업사정(vocational assessment)의 원칙이다 이것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근로자 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에 맞게 실시되어야 하고, 단기간에 걸쳐 생애주기에 따라 단계적·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율성 및 노사협력의 원칙이다 이것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실시되어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회균등(equality of opportunity)의 원칙이다. 이것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기업 등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우선배려의 원칙이다. 이것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장애인, 고령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여성,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등 소외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ILO(1995)는 직업훈련의 기본이념을 일반 직업훈련 현장에 장애인을 비장애인의 동료로 합류시킨다는 주류화(mainstream)와 장애인을 사회에 자연스럽게 통합시킨다는 통합화(integration)에 두고 준비성, 정상준거, 동등조건, 통합과 특수성, 개별성 존중, 훈련직종 취업의 원칙과 같이 6가지 기본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석돈, 2004).

2) 직업훈련의 유형

(1) 기준에 따른 훈련유형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준훈련, 기준외 훈련, 우선선정 직종훈련으로 다음 <표 1>과 같이 분류된다.

<표 1> 기준에 따른 훈련유형

구분	내용
기준훈련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직종의 훈련 고시내용 : 훈련분야별 직종에 대하여 훈련시간, 훈련직종, 훈련시설 기준 면적, 훈련교사, 교과내용, 평가사항, 관련 교재 등
기준외훈련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직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훈련
우선선정 직종훈련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우선적인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직종에 따른 훈련

(2) 내용에 따른 훈련유형

직업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성격에 의해 그 종류를 분류하면 입사훈련(orientation training), 종업원훈련(employee training), 예비훈련(preparatory training), 보충훈련(vestibule training), 일반교양훈련, 훈련담당자훈련, 특수훈련 등이 있다(박석돈 2001).

(3) 기간 및 대상에 따른 훈련유형

직업훈련은 기간에 따라 양성훈련, 전직훈련, 향상훈련으로 구분되며, 각 훈련에 따른 대상을 분류하면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기간 및 대상 따른 훈련유형

구분	양성훈련	전직훈련	향상훈련
훈련기간	1개월 이상	2주 이상	20시간 이상
훈련대상	해당분야의 무기능자로 취업희망자 또는 구직등록자	직업전환이 필요한 근로자나 실업자	재직근로자나 해당분야의 기초적인 지식, 기술, 기능을 갖춘 자
훈련내용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기술, 기능을 훈련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 기능을 습득시켜 새로운 분야로 취업 유도	재직분야에 대한 직무수행능력과 신기술 추가 습득
특징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시설에서 실시하는 인정직업훈련 등이 모두 이에 해당.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일부 실시.	장애인 직업훈련 시설의 경우 이 과정을 두고 있는 기관은 없으며 대체로 산업현장의 필요에 의해 통합적으로 실시.

(4) 장소에 따른 훈련유형

일반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방법은 훈련장소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Jarrell (1972)은 직업훈련의 방법을 공식적 훈련(formal training)과 비공식적 훈련(informal training)으로 나누었는데, 공식적 훈련을 특정한 시설과 장소에서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훈련이라고 하였다. 또한 Smick와 Crunkilton(1989)는 직업훈련을 시설훈련(institutional training)과 비시설 훈련(noninstitutional training)으로 나누었는데, 비시설 훈련은 산업현장에서 실시되는 훈련을 지칭하고, 시설훈련은 특정한 환경과 장비를 갖춘 시설에서 실시되는 훈련을 지칭한다.

(5) 방법에 따른 훈련유형

훈련방법에 따라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통신)훈련으로 다음 <표 3>와 같이 구분된다.

<표 3>

방법에 따른 훈련유형

구분	내용
집체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용시설을 이용하거나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 공공 및 지정후년시설, 사업내훈련시설, 복지관, 사회교육원 등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으로 산업체 현장훈련을 포함한다.
원격훈련	인터넷, 방송, 우편 등 정보 및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

3. 직업훈련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이제까지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방향은 주로 직업재활에 대한 인식과 실태 및 개선방향, 취업실태 그리고 고용 이후 직무만족요인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서비스에 대한 질적 욕구가 높아지면서 경영학분야에서의 소비자만족도와 유사한 주관적인 만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에는 직업재활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효과성 분석, 성과 분석 등이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에 관한 논문은 남명수(1999), 이경진(2001), 이미(2002), 이효성(2000) 등으로 각기 직업재활서비스 혹은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서비스 만족도 등에 관해 연구되었고, 대상은 지체장애인, 산재장애인 등의 특정 장애영역에 관한 연구는 물론, 직업훈련과 같은 특정 재활서비스영역에 관해서도 연구되었다.

우선 남명수(1999)는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각 장애인복지관 및 재활시설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유형과 지체장애인들의 직업재활에 미치는 효과 여부 및 직업재활 수준 등을 조사하여, 현행 직업재활 프로그램들이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해당기관의 실무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직업재활 프로그램들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과 함께 프로그램과 상황과의 차이점을 찾아냄으로써,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직업재활 프로그램 개발,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업재활프로그램과 직업현장 사이의 괴리해소를 위한 노력, 프로그램 진행기간의 재조정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직업재활에 이르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이경진(2001)은 장애인의 궁극적인 목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위한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산재장애인의 직업재활현황과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있는 재활훈련원의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훈련만족도 및 심리적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훈련에 관해서 대부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지원이 아직 미비하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산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을 통해 심리적 만족도가 높아졌음을 알아냄으로써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제시하였다.

이미(2002)는 산재장애인 직업훈련비용지원제도 중심의 직업재활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훈련내용 및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대체로 내용에 대해서는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간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고, 이경진(2001)의 연구와 동일하게 경제적인 지원 즉 훈련수당과 같은 부분에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연구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강화되어야 할 지원내용으로 훈련비용 및 수당의 확대 그리고 창업교육 및 지원확대의 욕구를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제공,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이효성(2000)은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과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과 관내 사업장에서 취업중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질(신뢰성, 편의성, 유형성, 접근성), 서비스 담당자의 태도가 훈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각각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 담당자의 태도가 서비스의 질보다 좀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바람직한 직업재활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①장애인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 개발, ②개별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전략, ③서비스 담당자들이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찾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④서비스 질의 요소 중 특히 신뢰성, 편의성과 같은 무형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비장애인에 관한 많은 훈련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강승복(2001), 나영선·고혜원(2001), 주기성(2002) 등이 있다.

강승복(2001)의 연구에 의하면, 전국 9개 도시의 제2차 IT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762명의 훈련생을 대상으로 훈련과정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훈련기관의 훈련생 관리, 이론과 실습 비중, 학급의 수강생 규모를 들었고,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 훈련수당, 휴게실·자율학습시설 등의 훈련기관 부대시설 취업정보소개·알선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훈련기관은 훈련개시 이전에 해당지역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훈련기관의 과거 취업현황 등을 소개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 및 맞춤훈련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과정별, 연령별, 학력별, 가구소득별, 고용보험 적용별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나영선·고혜원(2001)의 고학력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훈련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대부분 훈련과정에 대해서 비교적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취업정보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훈련기관 및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정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주기성(2002)은 98년과 99년에 부산 성심외국어대학에서 실시한 실업자 재취업과 고학력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훈련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파악한 결과 훈련시설 및 교육장비, 훈련실시 기간 중 수업진행방식, 훈련수준의 적합성, 강사의 강의수준 및 준비상태, 훈련기관의 훈련생에 대한 복지, 훈련 전반에 걸친 상담, 훈련과 취업에 대한 연계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취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상담, 훈련생 복지, 수업진행방식 순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의 논문들을 종합하자면, 장애인, 비장애인 직업훈련기관의 구분없이 훈련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해하는 반면, 취업알선 및 연계, 경제적인 지원 부분에서 불만족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5개 지역(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전체 훈련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수된 설문지 330개를 연구결과분석에 활용하였으며 <표 4>와 같다.

<표 4>

연구대상자

지역	빈도(명)	백분율 (%)
일산	83	25.2
부산	85	25.8
대구	50	15.2
대전	49	14.8
전남	63	19.1
계	330	100.0

2. 연구절차 및 기간

본 연구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자료수집 및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3월까지 국내외 자료와 선행연구를 통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여 2006년 5월까지 연구설계 및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2006년 7월까지 한국고용촉진공단 산하 5개 직업

능력개발센터의 생활지도사, 교사에게 서면으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단계를 거쳐, 2006년 8월부터 9월까지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목적으로 구성된 설문지는 직업훈련 만족도에 관한 연구인 이경진(2001), 최유미(2000), 이효성(2000)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훈련 만족도에 관한 요인으로는 훈련과정, 훈련시설의 두 가지 범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별 척도는 매우만족한다(5점), 만족한다(4점), 보통이다(3점), 만족하지 않는다(2점), 전혀만족하지않는다(1점)로 일반적 사항, 훈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Likert 5점척도를 이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일반적인 문항 25문항, 직업적 욕구에 관한 문항 4문항, 훈련교과과정만족도에 관한 문항 8문항, 훈련운영과정에 관한 문항 6문항, 훈련시설만족도에 관한 문항 6문항으로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전체 Cronbach's α 값 .909이며, 각 요인별 신뢰도와 문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설문문항

구분	내용	문항수	Cronbach's α
일반적인 사항	1. 성별, 나이, 종교, 학력, 장애원인, 장애유형 등에 관한 인구 통계학적 정보	21 문항	
	2. 직업훈련을 알게 된 경로, 참여동기, 훈련경험 등 훈련전반에 관한 사항		
	3. 직업선택기준, 고용형태, 근무형태, 보수에 관한 직업적 욕구		
만족도 요인	훈련교과과정	8문항	.907
	훈련운영과정	6문항	.707
	훈련시설	6문항	.753
계		41 문항	.909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12.0을 사용하여, 직업적 욕구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만족요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인 사항에 따른 만족요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장애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연구대상자의 훈련공과는 전자 67명(20.3%), 기계 52명(15.8%), IT 38명(11.5%), 디자인 31명(9.4%)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각 공과별 장애수준을 살펴보면 다음 <표 6>와 같다. 장애수준은 중증(1,2급), 경증(3급이하)으로 구분하였고, 훈련공과는 기계(기계, 전산응용기계), 전자, 예술·디자인(인쇄매체, 출판미디어·인쇄, 디자인, 컴퓨터그래픽디자인, 컴퓨터 애니메이션, 건축설계), IT·정보(IT, IT디지털광고영상, 정보기술), 기타(의상, 공예, 창업, 외식 및 제과제빵)로 구분하였다.

<표 6> 장애와 관련한 특성 및 훈련공과

항목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장애유형	지체	206	62.4
	뇌병변	39	11.8
	시각	26	7.9
	청각	33	10.0
	언어	4	1.2
	정신	8	2.4
	신장	5	1.5
	안면	3	0.9
	장루·요루	2	0.6
	간질	4	1.2
장애등급	1급	30	9.1
	2급	100	30.3
	3급	85	25.8
	4급	40	12.1
	5급	23	7.0
	6급	52	15.8
장애원인	선천성	75	22.7
	교통사고	78	23.6
	질병	77	23.3
	산업재해	23	7.0
	기타	77	23.3

장애수준을 훈련공과에 따라 보면, 전반적으로 경증의 장애인훈련생이 많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기계, 전자는 경증의 장애인훈련생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맞춤형훈련의 영역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된다.

<표 7> 훈련공과에 따른 장애수준

구분 항목	훈련공과					χ ² 검증
	기계	전자	예술·디자인	IT·정보	기타	
중증	18(31.0)	14(20.9)	54(50.5)	30(43.5)	14(48.3)	χ ² = 18.236**
경증	40(69.0)	53(79.1)	53(49.5)	39(56.5)	15(51.7)	
전체	58(100)	58(100)	53(100)	58(100)	58(100)	

** p<.01

2. 훈련생의 직업적 욕구에 관한 분석

1) 성별에 따른 직업적 욕구

성별에 따른 직업적 욕구 즉, 직업선택기준, 희망고용형태, 희망근무형태, 희망보수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유의미한 것만 제시하였으며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성별에 따른 직장선택기준 및 희망고용형태

단위명 : 명(비율%)

구분 항목	구분	성별		χ ² 검증
		남자(%)	여자(%)	
직장 선택기준	보수및승진	64(23.1)	19(35.8)	χ ² = 8.233*
	적성	140(50.5)	27(50.9)	
	근무환경및적성	47(17.0)	7(13.2)	
	대인관계및기타	26(9.4)	0(0%)	
희망 고용형태	전일제정규직고용	247(89.2)	40(75.5)	χ ² = 7.753*
	시간제임시직고용	14(5.1)	5(9.4)	
	자영업및기타	16(5.8)	8(15.1)	
	전체	277(100)	53(100)	

* p<.05

성별에 따른 직장선택기준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χ²=8.233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p<.05). 남자는 적성에 맞는 업무 50.5%, 보수 및 승진 23.1%, 근무환경 및 적성 17.0%, 대인관계 및 기타 9.4%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에는 직장선택시 중요시하는 것으로는 장기근무, 안정성, 기술발전, 회사의 장래성 등으로 제시했다. 여자 또한 적성에 맞는 업무 50.9%, 보수 및 승진 35.8명, 근무환경 및 적성 13.2%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및 기타는 나타나지 않았다.

희망고용형태에 대한 분석결과는 $\chi^2=7.753$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p<.05$). 남자는 전일제정규직고용 89.2%, 시간제임시직고용 5.1%, 자영업 및 기타 5.8%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전일제정규직고용 75.5%, 시간제임시직고용 9.4%, 자영업 및 기타 15.1%로 나타났다.

남녀 빈도차가 매우 크므로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비율적으로 살펴보면, 직장선택기준은 성별의 비율적 차이가 있고, 우선시하는 순서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희망고용형태 또한 성별의 비율적 차이가 나타나고, 특히 자영업 및 기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에 따른 직업적 욕구

장애유형 및 수준에 따른 직업적 욕구 즉, 직업선택기준, 희망고용형태, 희망근무형태, 희망보수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장애유형은 외부장애(지체, 뇌병변장애, 시각, 청각, 언어장애), 정신 및 내부장애(심장, 신장, 간질, 장루·요루장애, 정신장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장애수준은 중증(1, 2, 3급)과 경증(4, 5, 6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유의미한 것만 제시하였다.

(1) 장애유형

다음 <표 9>와 같이 장애유형에 따른 희망근무형태에 대한 분석결과는 $\chi^2=10.403$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p<.01$). 장애유형별로 각각 75.3%, 50.0%로 출근근무를 희망한다고 나타났으며, 외부장애를 가진 대상자가 병행 및 기타(14.6%)를 재택근무(10.1%)보다 덜 희망한다고 나타난 반면, 정신 및 내부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은 병행 및 기타(18.2%)보다 재택근무(31.8%)를 더 희망한다고 나타났다. 빈도의 차이가 커서 비교하는 것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나 장애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났고,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고용형태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외부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이 재택을 더 희망할 것이라는 종전의 가정과는 달리 정신 및 내부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이 재택을 더 희망한다고 나타난 것은 다소 의외라 할 수 있다.

<표 9> 장애유형에 따른 희망고용형태

단위명 : 명(비율%)

항목	구분	장애유형		χ^2 검증
		외부장애	정신 및 내부장애	
희망 근무형태	재택근무	31(10.1)	7(31.8)	$\chi^2 = 10.403^{**}$
	출근근무	232(75.3)	11(50.0)	
	병행및기타	45(14.6)	4(18.2)	
전체		308(100)	22(100)	

** $p<.01$

(2) 장애수준

다음 <표 10>와 같이 장애수준은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였으며 장애수준에 따른 희망보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chi^2=7.36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p<.05$). 중증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의 70%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사이의 보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만원이상이 15.4%, 100만원미만이 14.6%으로 나타났다. 경증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은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80.0%, 200만원이상 14.0%, 100만원미만으로 6.0%순으로 보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보수의 수준은 중증장애, 경증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에게서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비율적인 면에서 살펴볼 때, 중증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이 경증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에 비해 100만원미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증이라는 자신들의 장애로 인해 희망보수를 적게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10> 장애수준에 따른 희망보수

단위명 : 명(비율%)

항목	구분	성별		χ^2 검증
		중증(%)	경증(%)	
희망보수	100만원미만	19(14.6)	12(6.0)	$\chi^2 = 7.365^*$
	10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91(70.0)	160(80.0)	
	200만원이상	20(15.4)	28(14.0)	
전체		130(100)	53(100)	

* $p<.05$

3) 훈련공과에 따른 직업적 욕구

훈련공과에 따른 직업적 욕구 즉, 직업선택기준, 희망고용형태, 희망근무형태, 희망보수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훈련공과는 기계(기계, 전산응용기계), 전자, 예술·디자인(인쇄매체, 출판미디어·인쇄, 디자인, 컴퓨터그래픽디자인, 컴퓨터애니메이션, 건축설계), IT·정보(IT, IT디지털광고영상, 정보기술), 기타(의상, 공예, 창업, 외식및제과제빵)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유의미한 것만 제시하였다

<표 11>와 같이 훈련공과에 따른 직업적 욕구에 대한 분석결과는 각각 희망고용형태 $\chi^2=37.023(p<.01)$, 희망보수 $\chi^2=11.794$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p<.01$).

희망고용형태에서 보면, 특히 기타 27.6%는 의상, 공예, 창업, 외식및제과제빵과 같은 공과들로 창업이 용이한 공과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관련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희망보수에서 보면 기계 29.3%는 200만원이상의 보수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는데 이 또한 설문조사 당시 기계공과에 대기업 맞춤형훈련 학생이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 11> 훈련공과에 따른 희망고용형태 및 보수

단위명 : 명(비율%)

항목	구분	훈련공과					x ² 검증
		기계	전자	예술 디자인	IT·정보	기타	
희망 고용형태	전일제정규직고용	53(91.4)	65(97.0)	87(81.3)	65(94.2)	17(58.6)	x ² = 37.023**
	시간제임시직고용	2(3.4)	0(0)	10(9.3)	3(4.3)	4(13)	
	자영업및기타	3(5.2)	2(3.0)	10(9.3)	1(1.4)	8(27.6)	
희망보수	100만원미만	1(1.7)	5(7.5)	11(10.3)	7(10.1)	7(24.1)	x ² = 27.774*
	10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40(69.0)	56(83.6)	88(82.2)	50(72.5)	17(58.6)	
	200만원이상	17(29.3)	6(9.0)	8(7.5)	12(17.4)	5(17.2)	
전체		58(100)	67(100)	107(100)	69(100)	29(100)	

*p<.05, **p<.01

4) 학력에 따른 직업적 욕구

학력에 따른 직업적 욕구 즉, 직업선택기준, 희망고용형태, 희망근무형태, 희망보수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하, 고등학교졸업, 대학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유의미한 것만 제시하였다.

다음 <표 12>와 같이 학력에 따른 직업적 욕구에 대한 분석결과는 각각 희망고용형태 x²=14.793(p<.01), 희망근무형태 x²=21.773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p<.01).

희망고용형태에서 보면, 대부분인 고등학교졸업과 대학이상에서만 볼 때, 대학이상의 전일제정규직고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희망근무형태에서는 고등학교졸업의 병행 및 기타가 대학이상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학력의 구분을 하지 않고서라도 전일제정규직고용과 출근근무가 모두 우세하다는 것을 결과는 나타내고 있다.

<표 12> 학력에 따른 희망고용형태 및 희망근무형태

단위명 : 명(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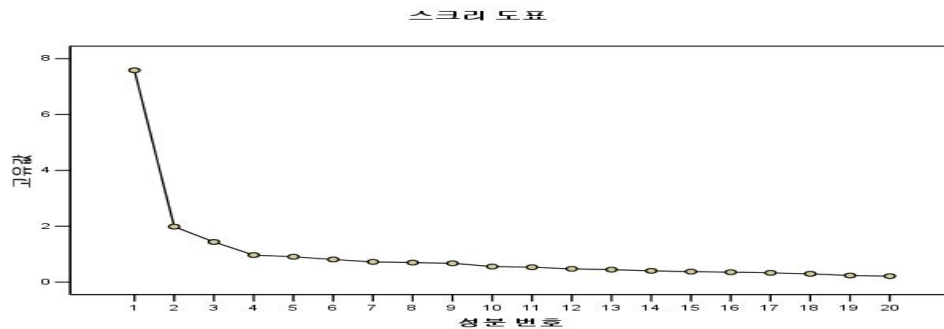
항목	구분	학력수준			x ² 검증
		중학교졸업이하	고등학교졸업	대학이상	
희망 고용형태	전일제정규직고용	10(58.8)	157(86.3)	120(91.6))	x ² = 14.793**
	시간제임시직고용	3(17.6)	12(6.6)	4(3.1))	
	자영업및기타	4(23.5)	13(7.1)	7(5.3)	
희망 근무형태	재택근무	7(41.2)	18(9.9)	13(9.9)	x ² = 21.773**
	출근근무	8(47.1)	129(70.9)	106(80.9)	
	병행및기타	2(11.8)	35(19.2)	12(9.2)	
전체		17(100)	182(100)	131(100)	

**p<.01

3. 훈련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1) 척도별 점수별 요인분석 결과

직업훈련과정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aiser-Meyer-Olkin(KMO)검정값이 .910으로 유의미하게 나왔고(p<.01), <그림 1>과 같이 스크리도표로 작성하여 분석한 결과 3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요인분석에 대한 결과

또한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 요인은 다음 <표 13>와 같은 3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요인 항목들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 요인은 훈련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두 번째 요인은 훈련운영과정에 대한 만족도 세 번째 요인은 훈련시설에 대한 만족도로 명명할 수 있겠다.

<표 13> 직업훈련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제곱합 적재값			회전 제곱합 적재값		
	전체	%분산	%누적	전체	%분산	%누적	전체	%분산	%누적
훈련교과과정	7.583	37.915	37.915	7.583	37.915	37.915	5.926	29.630	29.630
훈련운영과정	1.986	9.930	47.845	1.986	9.930	47.845	2.822	14.109	43.739
훈련시설	1.436	7.181	55.026	1.436	7.181	55.026	2.257	11.287	55.026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 요인분석은 <표 14>과 같다. 첫 번째 요인은 1, 2, 3, 4, 5, 6, 7, 8, 12, 13, 14과 같이 9문항으로 훈련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로 명명할 있고, 두 번째 요인은 9, 10, 11과 같이 3문항으로 훈련운영과정에 대한 만족도로, 세 번째 요인은 15, 16, 17, 18, 19, 20과 같은 6문항으로 훈련시설에 대한 만족도 문항으로 명명할 수 있다.

<표 14>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 요인분석점수

	성분행렬			회전된 성분행렬		
	1	2	3	1	2	3
훈련내용	.819	-.208	.068	.793	.155	.256
희망훈련과정이수	.623	-.299	-.250	.705	.171	-.118
취업과의 연관성	.643	-.286	-.234	.713	.181	-.092
수준별훈련	.630	-.233	.010	.653	.087	.131
직업훈련시간	.651	-.193	-.021	.652	.142	.129
직업훈련기간	.644	-.098	.126	.582	.132	.289
교사수업방법	.757	-.172	.272	.705	.048	.421
훈련실습시간	.796	-.199	.094	.768	.138	.273
훈련장비	.544	.308	.125	.289	.395	.422
교사전문지식	.477	.222	.643	.226	.027	.799
실무지장애이해정도	.621	.144	.424	.408	.144	.631
심리적안정도	.705	-.125	-.148	.672	.282	.067
직업훈련권유	.715	-.179	.008	.696	.164	.181
재교육	.644	-.145	.002	.618	.162	.165
교통편	.576	.253	-.130	.359	.497	.191
건물내부이용	.325	.714	.089	-.118	.619	.477
입학절차(이용절차)	.291	.636	.113	-.107	.538	.454
편의시설	.532	.414	.488	.265	.786	-.062
여가시설	.559	.277	-.529	.365	.718	-.142
구내식당	.456	.375	-.171	.196	.559	.164

요인추출방법 : 주성분 분석, 회전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a. 6 반복계산으로 요인회전이 수렴됨

2) 직업훈련만족도 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 <표 15>과 같다. 훈련운영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53이고, 훈련시설만족도는 평균 3.51, 훈련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3.40으로 나타났다.

<표 15> 직업훈련에 만족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요인	항목	M	SD
	내용		
I	훈련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3.40	.73
II	훈련운영과정에 대한 만족도	3.53	.74
III	훈련시설에 대한 만족도	3.51	.67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훈련만족도 차이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훈련만족도 차이분석을 위해 요인분석 후 추출된 3요인을 바탕으로

로 일원배치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들은 지역, 훈련공과, 장애 유형, 연령에서 평균에 차이를 나타냈고, 전반적인 훈련사항인 훈련필요성에 따라 평균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훈련경험유무에 따른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개별분항별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일부분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지역에 따른 비교

지역에 따른 훈련만족도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지역에 따른 만족도

	지역	N	M	SD	F	Scheffe
훈련교과과정	일산	83	3.49	.53	7.450**	일산-전남* 부산-전남** 대전-전남*
	부산	85	3.59	.63		
	대구	50	3.38	.70		
	대전	49	3.45	.59		
	전남	63	2.99	1.01		
	합계	330	3.40	.73		
훈련준비과정	일산	83	3.38	.76	2.146	
	부산	85	3.69	.70		
	대구	50	3.50	.75		
	대전	49	3.61	.73		
	전남	63	3.48	.74		
	합계	330	3.53	.74		
훈련시설	일산	83	3.32	.72	7.713**	일산-부산** 일산-대구** 부산-전남** 대구-전남**
	부산	85	3.69	.59		
	대구	50	3.78	.62		
	대전	49	3.52	.61		
	전남	63	3.28	.66		
	합계	330	3.51	.67		

* p<.05, **p<.01

지역에 따라 훈련교과과정(F=7.450, p<.01)에 대한 만족도와 훈련시설(F=7.713, p<.01)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부산-전남, 대구-전남이 다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훈련과정만족도 수준에서만 살펴보면 일산-전남, 대전-전남은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에 대한 평균을 비교해보면, 훈련교과과정에 있어서는 부산(M=3.59), 일산(M=3.49), 대전(M=3.45), 대구(M=3.38), 전남(M=2.99)순이고, 훈련시설에 있어서는 대구(M=3.78), 부산(M=3.69), 대전(M=3.52), 일산(M=3.32), 전남(M=3.28) 순으로, 두 요인에서 모두 전남이 타지역에 비해 만족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운영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평균을 비교해보면 부산(M=3.59), 대전(M=3.61), 대구(M=3.50), 전남(M=3.48), 일산(M=3.38)순으로 나타났는데, 일산이 다른 지역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훈련공과에 따른 비교

훈련공과에 따른 훈련만족도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17>과 같다. 훈련공과별로 훈련시설요인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전자공과와 예술·디자인 공과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균을 비교해보면, 전자(M=3.74), 기타(M=3.56), IT·정보(M=3.48), 기계(M=3.45), 예술·디자인(M=3.40)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훈련공과에 따른 만족도

	지역	N	M	SD	F	Scheffe
훈련교과과정	기계	58	3.35	.88	1.254	
	전자	67	3.38	.66		
	예술·디자인	107	3.37	.75		
	IT·정보	69	3.38	.65		
	기타	29	3.69	.60		
	합계	330	3.40	.73		
훈련준비과정	기계	58	3.52	.78	1.853	
	전자	67	3.54	.72		
	예술·디자인	107	3.46	.73		
	IT·정보	69	3.52	.69		
	기타	29	3.87	.77		
	합계	330	3.53	.74		
훈련시설	기계	58	3.45	.63	2.849*	전자-예술디자인*
	전자	67	3.74	.62		
	예술·디자인	107	3.40	.73		
	IT·정보	69	3.48	.66		
	기타	29	3.56	.56		
	합계	330	3.51	.67		

* p<.05

3) 장애유형에 따른 비교

장애유형에 따른 훈련만족도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17>과 같다. 비교대상 장애유형은 빈도가 10명 미만인 안면, 심장, 신장, 간질 등을 제외한 4가지 장애에 대해서만 비교하였다. 훈련교과과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평균을 비교해보면,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순으로 나타났다. 훈련운영과정 및 훈련시설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훈련운영과정의 평균을 살펴보면 청각장

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순으로 나타났고, 훈련시설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순으로 나타났다. 훈련과정 및 시설 모두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훈련생의 만족도가 다른 장애를 지닌 훈련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표 18> 장애유형에 따른 만족도

	장애유형	N	M	SD	F	Scheffe
훈련교과과정	지체장애	206	3.35	.78	2.905*	
	뇌병변장애	39	3.61	.53		
	시각장애	26	3.37	.62		
	청각장애	33	3.67	.57		
	합계	304	3.42	.72		
훈련운영과정	지체장애	206	3.50	.74	1.652	
	뇌병변장애	39	3.67	.66		
	시각장애	26	3.49	.72		
	청각장애	33	3.77	.72		
	합계	304	3.40	.73		
훈련시설	지체장애	206	3.53	.67	.577	
	뇌병변장애	39	3.60	.72		
	시각장애	26	3.38	.57		
	청각장애	33	3.52	.69		
	합계	304	3.40	.67		

* p<.05

4) 연령에 따른 비교

연령에 따른 훈련만족도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제시하면 <표 19>와 같다. 연령에 따른 훈련교과과정 만족수준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훈련운영과정 (F=3.058, p<.05)와 훈련시설(F=3.325, p<.05)에 대한 만족수준만을 분석하면 다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다만, 사후검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빈도의 차이가 커서 비교하는 것이 다소 무리일 수도 있지만, 평균을 비교해보면, 훈련운영과정 요인에서는 50세이상 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을 나타냈고, 훈련시설요인에서는 20세미만 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을 나타냈다.

<표 19> 연령에 따른 만족도

	연령	N	M	SD	F	Scheffe
훈련교과과정	~20세미만	6	3.45	.59	.542	
	20세이상~30세미만	183	3.41	.72		
	30세이상~40세미만	117	3.41	.78		
	40세이상~50세미만	22	3.22	.54		
	50세이상~	2	2.95	.73		
	합계	330	3.40	.73		

<표 19>에서 계속

	연령	N	M	SD	F	Scheffe
훈련운영과정	~20세미만	6	3.00	.87	3.058*	
	20세이상~30세미만	183	3.58	.69		
	30세이상~40세미만	117	3.57	.50		
	40세이상~50세미만	22	3.18	.58		
	50세이상~	2	2.67	1.41		
	합계	330	3.51	.67		
훈련시설	~20세미만	6	2.81	.73	3.325*	
	20세이상~30세미만	183	3.50	.67		
	30세이상~40세미만	117	3.61	.66		
	40세이상~50세미만	22	3.32	.65		
	50세이상~	2	2.83	.71		
	합계	330	3.51	.67		

* p<.05

V. 결론

본 연구는 공공 장애인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 훈련생들의 직업적 욕구와 훈련만족도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직업훈련기관의 훈련생들의 성별, 연령, 학력, 공과, 장애에 따른 훈련생들의 직업적 욕구를 알아보았으며, 직업훈련만족도 요인에 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았고, 장애인 직업훈련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훈련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5개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훈련 중인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훈련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직업적 욕구, 훈련과정 및 시설에 대한 훈련만족도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훈련생의 직업적 욕구(직업선택기준, 희망고용형태, 희망근무형태, 희망보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직장선택시 적성을 중요시하고, 전일제정규직고용과 출근근무,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의 보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장애유형 및 수준, 훈련공과, 학력에 따라서는 일부 차이를 보였는데, 다소 의외의 결과는 외부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이 재택근무를 더 희망할 것이라는 통상적인 관점과 달리 정신 및 내부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이 재택을 더 희망한다는 것이다. 희망보수에서는 비율은 비슷하지만 중증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이 경증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에 비해 100만원미만을 희망한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증이라는 자신들의 장애로 인해 희망보수를 적게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직업훈련과정 및 시설에 관한 만족도 요인을 분석한 결과 훈련교과만족도, 훈련

운영만족도, 훈련시설만족도로 총 3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통해 구성된 연구도구는 크게 훈련과정과 훈련시설 2요인으로 구성되었으나, 분석결과 훈련과정이 다시 훈련교과과정과 훈련운영과정으로 세분화되어 총 3요인으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만족도분석에서는 훈련운영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3.53이고, 훈련시설만족도는 3.51, 훈련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3.40으로 전반적으로 훈련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사항에 관한 만족도 분석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전남이 훈련교과과정과 훈련시설요인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데, 이는 전남의 지리적인 특성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훈련공과별로는 훈련시설만족도에 대해 전자, IT·정보, 기계, 예술·디자인순으로 나타났는데 시설의 편리성이 공학쪽으로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빈도가 높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만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훈련생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훈련교과과정은 나이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훈련운영과정과 훈련시설에서 대해서는 20세미만, 50세 이상이 20·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공공 장애인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장애인직업훈련기관의 훈련대상자 선발시 감각장애 정신 및 내부장애 등 다양한 장애유형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연구의 결과 훈련생들이 특정 장애 특히,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로 집중되어 있는데, 수화통역사, 점자교재와 같은 전문적인 훈련지원이 필요한 감각장애(시각, 청각), 약물관리와 같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정신장애 및 간질장애를 가진 훈련희망자에 대한 관심과 선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중증장애인이나 재취업을 위한 50세이상의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별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직업능력개발센터의 훈련생들은 대부분 20·30대로서 인구고령화에 따라 고령장애인들의 직업훈련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셋째, 훈련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훈련형태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의 맞춤형훈련이 기계·전자계열의 대기업 수요 중심인데 반해 장애인들의 인문사회과학적인 훈련욕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훈련생 훈련만족도의 균형을 위해서는 지역간의 지원인센티브나 지역에 맞는 훈련영역의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가장 최근에 설립된 전남직업능력개발센터의 훈련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유추해볼 때 훈련기관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훈련생이 가장 집중된 기계나 전자분야가 전남에는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에 적절한 지원과 전남직업능력개발센터만의 독창적인 공과, 예컨대 화훼나 특용작물재배와 같은 지역실정에 맞는 훈련분야의 개발로 차별성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훈련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훈련직종의

변화와 훈련과정이나 시설에 대한 신속한 향상(upgrade)이 필요하다. 기존의 훈련분야만으로는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장애인들의 구직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도태되기 쉬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승복 (2001). IT직업훈련생 만족도 분석.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평가센터(미발간보고서).
- 나영주·박정주 (1992). 직업훈련과정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 나영선·고혜원 (2001). 고학력 실업자 훈련이수자의 직종적합성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남명수 (1999). 직업재활프로그램에 관한 효과성 분석: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석돈 (2001). 장애인 직업진로교육 및 지도론. 대구: 유림출판사.
- 박석돈 (2004). 장애인 재활의 과정 및 프로그램. 대구: 대구대학교출판부.
- 서상선 (2002). 한국직업훈련제도의 발자취. 대한상공회의소.
- 이경진 (2001). 산재장애인의 직업재활현황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 근로복지공단 재활원을 중심으로 -. 미간행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효성 (2000). 직업재활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 (2002). 산재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직업훈련비용지원제도 중심으로-. 미간행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기성 (2002). 직업훈련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대학·전문대학을 중심으로 -. 미간행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유미 (2000). 중증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미간행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Hamilton, G. S., & Roessner, J. D. (1989). How employers screen disadvantaged job applicants. *Monthly Labor Review*, 95(9), 14-21.
- Goodwill (1999). Goodwill Industry Manual.
- ILO (1990). Conditions of work digest-Telework, Volume 9.
- ILO (1995). Recommendation Concern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the Disabled. Geneva: ILO.
- Jarrell, G. R. (1972). Selective training In J. G. Cull & R. E. Hardy (Eds.),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fession and process*.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Oliver, M. (1996).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theory to practice*, NY: St. Martin's Press.
- Pratt, C. W., Gill, K. J., Barrett, N. M., & Roberts, M. M. (1999). *Psychiatric rehabilitation*. NY: Academic Press.
- Randall, M. Parker, Szymanski, E. M., & Patterson, J. B., (2005). *Rehabilitation Counseling: Basics and Beyond* 4th edition. pro-ed.
- Smick, R. A. & Crunkilton, J. R. (1989). Enabling Behaviors Exhibited by Selected Virginia Postsecondary Vocational Technical Instructors. American Vocational Association Convention. Virginia.

A study on the Satisfaction Degree of Vocational Trainees with disabilities

Park, Suk-Don

Daegu University

Cho, Joo-Hyun

Woosuk University

Han, Sang-Hee

Gijang Welfare Cente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atisfaction degree of vocational trainees with disabilities.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330 trainees who were training in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Center" of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KEPAD)".

In this study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using SPSS 12.0. It is performed frequency analysis to exam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d, crosstabulation analysis(chi-square test) to examine the vocational desire. It is performed factor analysis to verif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satisfaction factors, analysed using the t-test and one-way ANOVA to verify differences of satisfaction factors according to general affairs.

The main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of the study and the whole training, the trainees were, for the most part, male trainees aged 20~30 with physical disabilities or a brain disease, and it is appeared that training field is partial toward the electrical and mechanical engineering. And, they are mostly participating in the vocational training in purpose of employment. And regarding the route of vocational training participation is introduction of KEPAD and acquaintances, over there Internet, it is interpreted that the portion of voluntary participant with economical reason is gradually increasing.

Second, According to analysis' result of trainee's vocational desire, they regarded the aptitude as important and expected the full-time regular job, attendance

work, pay between a million won and two million won.

Third, regarding the satisfaction degree analysis, considering analysis on general affairs, Region classified to training curriculum and training facilities' factor's, Jeon-Nam Center appeared to relatively low satisfaction degree comparing to the others. Training facilities' satisfaction degree classified to training field is appeared to the order of Electronics, Information Technology, Mechanics, the Arts and Design. According to disability type, the results of comparing physical disabilities, brain diseases, hearing impairments, visual impairments which is high frequency, it is generally appeared that satisfaction degree of trainees with visually disabilities is low relatively. In training curriculum classified to age, it is appeared that as it grows old, satisfaction degree is low, in training operation course and training curriculum, below 20 and over 50 age is appeared to low satisfaction degree comparative to 20~30 age.

Key words : satisfaction degree, vocational trainees with disabilities